

## 제 8 호 성령

### 1. 우리 구원의 필수 조건 ‘성령의 역사’

출처: *The Holy Spirit's Work - A Must in our Salvation*

저자: 셸턴(L. R. Shelton Jr.:1900?-1971): 칼빈주의 침례교 목사이며, 라디오 방송국인 the Voice of Truth를 창립하였다.

역자: 조상철

우리는 지난 번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 모두는 완전히 타락하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죄의 무덤 속에 누워 묻힌 채 사탄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자신보다 더 크고 사탄보다도 더 큰 능력에 의해 다시 살아나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8-11절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죄의 권세와 죄의 지배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요 또한 구원자로서 제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의 죄의 끈적함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불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빼앗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한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펼쳐 보이고자 한다. 그 자체로 진실의 영이자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 진실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1, 14,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필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볼 수 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도, 부를 수도 없다. 그 누구도 자신은 철저하게 멸망에 처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앎으로 상한 심령이 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오직 성령만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런 상한 심령을 주신다. 성령만이 하나님

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쭙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역시 거듭남에 대해 언급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취해서 그가 구원하실 죄인의 마음 속에 그것을 심고, 그 씨앗이, 즉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 물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신다. 종생은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 당신이 행했던 어떤 행위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종생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통해 발생된다. 우리 주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 성령은 주권자이시기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성령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성령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사람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간 이야기를 알고 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렸을 때, 그녀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1:34)라고 질문한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1:35)고 대답한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단 한 가지를 알았을 것인데, 그것은 남자의 씨가 없이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간구도 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고행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지만, 여자의 씨와 남자의 씨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백세까지 살게 되더라도 그녀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성령께서 친히 그녀에게 임하시고, 그녀를 덮으시고, 그녀의 태 속에 남자의 씨를 넣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씨를 지키실 것이고, 그녀에게서 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듣게 된다.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태에서 우리 주의 탄생에 역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주의 생명이 - 우리 안에 빛어진 그리스도의 형상, 곧 새로운 피조물을 말한다(고후5:17; 엡2:8-14, 갈4:19) - 잉태되도록 역사하신다. 그 일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종류의 사역을 하고, 도덕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고,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행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의 물질과 몸을 드리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새 생명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씨를 심을 수도, 물을 줄 수도, 그 씨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다. 생명을 주시는 이의 역사 없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빛을 볼 수 없다. 이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은 어떻게 말하는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4:6) 우리 주를 찬양하자. 그분이 명하시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며 빛에게 흑암을 비추라고 명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뒤덮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죄인의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은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죄, 비참함, 그리고 죽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하여 진리에 이르도록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죄인의 대속물과 하나님의 속죄제물로 드러진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렇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아버지의 소중한 사랑의 선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신다. 오직 그렇게 되어야만 죄인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며, 주의 흘려넘치는 보혈 안에서 죄 사함이 있고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게다가, 성령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한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주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로마서1장 30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은 성령 하나님 그 분에 의해 직접 심기어진 것이 분명하다.

오, 당신과 내가 이 위대한 진리를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그 어떤 것도 없다. 이에 오직 구원은 반드시 주로 말미암아야 하며, 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적이 있는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자. 요한복음 6장 63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은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일으켜 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오직 성령만이 생명, 곧 영적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흘려넘치는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 알려준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주의 교

회)에 속하게 되고 또한 주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한다. 따라서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중생,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등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나 자신도 모든 구원의 사역이 나의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 즉 나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나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주신 성령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게 된다.

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자. 그분의 삼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자. 그분의 지혜를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 주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주의 겸손함으로 인해 주를 사랑하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자.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을 찾아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자. 참으로 주께서 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셨다.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주를 찬양하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역사에 대해 빛진 자들이다.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롬8:15)라고 부르게 된다. 그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롬8:16).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지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다(벘전1:11).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이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신다(롬8:2).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과 충실하지 않는 것을 대적하신다(요14:17). 그는 신령한 생명의 모든 은혜를 전해주는 은총의 영이시다(속1:8). 그는 모든 약하고 무능한 것과는 반대되는 권능의 영이시다(행1:8). 그는 거룩한 영이시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롬1:4).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들은 끝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그에 의해 거룩해지고, 영감을 받으며, 보호받고, 채워진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열매를 맺고, 기도하고, 기뻐한다. 우리 몸은 그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되며, 매 순간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향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에게 굴복하고, 그로 채워지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

## 2.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출처: *The Withering Work of the Spirit*, Sermon No. 999 Vol 17 from the Metropolitan Tabernacle Pulpit

저자: 찰스 스펄전(1834-1892): 영향력 있던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역자: 안선형, 신형건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했은 여호와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6-8)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3-25)

위에 소개된 이사야 본문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주 또렷하게 설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설교자가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고,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만 누구도 이 말씀이 맞느니 틀리니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의 중요한 교훈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이러한 담론을 제기해 본다. 이 말씀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의 부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의도하신 바는 ‘육체’가 뜻하는 육에 속한 마음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단지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표현을 둘러싸고 있는 심오한 계시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표현을 인간의 죽음만으로 이해한다면 이사야의 의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 같다. 여기서 단순히 죽음 하나만 생각하는 개념이라면 이 구절을 설명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의 본문과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아주 분명한 진리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사야 40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 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시온은 여기저기서 전쟁에 시달렸고, 죄를 범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를 보내셔서 노역의 때를 끝내고 죄악을 사하시어 시온의 슬픔을 걷어 내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참조, 사 40:2). 이 말씀은 확실히 계시의 주제가 된다. 더 나아가 다음 구절은 메시아 강림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 확실하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사 40:3). 신약성경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이 말씀과 관련하여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일과 그가 선포할 메시아 사역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살펴보자. “여호와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 이와 관련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의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면, 훨씬 더 어울리는 의미가 있다. 그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아닐까? 즉,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인간이 자랑할 만한 모든 영광은 반드시 시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성이 마땅히 드러나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먼저 나타나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의 교만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항상 있어야만 했다.

여호와와 기운이 육체 위에 불게 되면(참조, 사 40:7), 강건해 보였던 육체는 쇠약해지고 아름다움은 부패로 인하여 시들어진다. 그래야만 육체의 본성이 탄로 나면서 거짓은 다 드러나고 육체의 힘 또한 파괴되어 영원히 거하시는 말씀이 섭리하면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의 주인 되신 큰 목자가 통치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구원의 씨가 뿌려지고 심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시들게 하시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

세례 요한은 구원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시들게 하는 전도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황폐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요 1:23). 그의 임무는 심는 일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 당시는 육을 따르는 유대교가 절정기를 이루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길을 때 거만하게 으스스대면서 다녔다. 스스로 형식적인 믿음에만 만족하다 보니 영적으로는 최악의 수준까지 추락했다. 간혹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지하였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마 3:9)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 세례 요한이 이 잘난체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마 3:7)이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는가! 또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마 3:10)고 선포하였으니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엘리야처럼 단호한 세례 요한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사 45:2), 모든 교만한 생각을 낮추는 일을 했다. “회개하라”는 말은 기고만장한 독선을 불태우는 뜨거운 바람이자 형식주의로 푹푹 뭉친 교만을 날려버리는 폭풍이었다.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과 그가 입은 옷은 금식과 애통을 요구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요단 강물에 담그면서 회개를 전파하며 사역의 상징인 죽음을 분명히 선포하였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죽고 장사되듯이 너희들 역시 죽어 장례를 치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이 말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상징을 전달하였다. 그가 삶으로 보여준 행실과 가르침은 항상 온전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오실 그분”(마 3:11-12)을 찾고 찾으라고 경고했다. 성령께서는 세례 요한을 육을 따르는 유대교의 헛된 영광을 멸하는 도구로 삼으셨고, 몰아치는 험한 북풍처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들게 하셔서 영적 믿음이 생기도록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들어버린 땅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다. 우리 주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서 그 뿌리의 한 가지로 오셨다(사 11:1). 실로가 오셨을 때는 규는 유대를 떠나 있었고 통치자의 지팡이도 그 발 사이에서 떠나 있었다(참조, 창 49:10).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좌에 앉아 있었고, 로마는 언약의 땅을 제국의 소유라고 선언했다. 계시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는 않았지만 오직 희미한 불빛만 간신히 내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에

는 백성을 위로해줄 이사가 같은 선지자도, 그들의 배교를 애통해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제도는 모두 닳아빠진 껍데기뿐이었다. 다 헤어져서 없어지기 직전이었다. 제사장 제도도 무질서했다. 누가는 그해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고 말한다. 일 년에 두 명을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곧 바울이 “세상에 속한 성소”(히 9:1)라고 불렀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활동들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며(마 27:51)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도 거두어졌고 육신에 속한 규례도 철폐되었다. 이는 성령께서 영적인 일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한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히 7:16) 따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히 7:18) 폐하셨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전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개인 경험을 다루려고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모든 것은 풀처럼 여겨져야 하고 또한 시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육체의 영광이 멸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반드시 영혼의 발 위로 불어오셔서 우리의 화려함이 쇠잔해져 가는 꽃처럼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은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된다. 또한, 우리의 본성은 부패 그 자체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참조, 롬 8:8)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전의 율법과 육에 속한 삶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성령께서 심으신 씨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참조, 뱀전 1:23)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영혼을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는 심으시는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시들게 하는 사역 후에는 항상 심으시는 사역이 뒤따른다.

1. 먼저 육체의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자. **육에 속한 것을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예기치 않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본문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외치라고 명령하시자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사 40:6)라고 반문한다.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갈 3:24)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들은 경작하지 않고 놀리던 땅은 씨를 뿌리면서 쟁기로 흙덩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나는 확실한 능력이신 성령의 예리한 바늘 없이 바느질하려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다. 전도자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될 뿐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존경받을만한 존재로 여기는 한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픈 사람만이 의사를 반갑게 맞이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는 그들은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생

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신하건대, 어느 영혼에게든 진정으로 은혜가 임할 때는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된다. 성령께서는 낡은 기초 위에 새집을 세우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나무, 건초, 그루터기 따위 위에 집을 짓지 않으신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은 아주 교만한 인간 본성이 쌓은 바벨탑을 다 태워버리신다. 성령은 우리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실 것이다(시 46:9). 모래 위에 지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야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위대한 초석을 놓으신다. 죄를 자각한 죄인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지만 평안을 누리는데 대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척 놀라게 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질문한다. “이것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인가요? 자아와 죄에서 구원해 주십사 기도했건만,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건가요? 제가 ‘응답해주세요’ 했더니 성령께서는 잔인한 자처럼 제게 상처를 입히십니다. ‘옷을 입혀주세요’ 했더니 오, 성령께서 제가 덮고 있던 다 닳아빠진 옷을 찢어버리시고 제 벌거벗은 몸을 뺏히 드러내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소서’ 했더니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고 내 옷마저 나를 싫어하게 하셨습니다(참조, 욥 9:31). 이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인가요?” 죄인들이여, 그러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당신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원인을 모르겠는가? 교만한 육체가 머물러있는 한, 어떻게 당신이 나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육체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것만이 당신이 영구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잠시 상처를 덮어 피부를 치료하더라도 뺏속 안에 있는 나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위대한 치료자께서는 날카로운 칼로 육체의 썩은 부분을 남김없이 다 도려내셔서 당신 안에서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도록 하신다. 당신에게 새 옷을 입히시기 전에 입고 있는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겠는가! 자, 당신이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얗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후에 그 옷 아래에 당신 자신의 더러운 옷을 숨겨놓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당신의 몸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하신 후에야 당신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 자신이 전적으로 부정확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애통해야만,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보혈을 참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어디에서 오든지 예고 없이 임한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계속 일어나는데, 종종 놀랍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멸하신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다. 우리는 영으로 시작한 후 마치 육체로 온전하게 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후에 우리가 잘못 쌓은 것들이 무너지면, 마치 맨 처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처럼 매우 놀라게 된다. 뉴턴의 글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주님께 간구했다네  
 믿음, 사랑, 모든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주님의 구원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더 진실하게 뵈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분이 주님이어서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었네  
 내가 절망에 빠져들 때면

언제나 그렇게 기도했다네

주님께서 즉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구속하여서  
내 죄를 죽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확신의 시간을 소원했다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 마음속 깊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옥 같은 분노의 힘이  
내 영혼의 구석구석을 고발하게 하셨다네

아, 주께서 그의 백성이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는 주의 음성은 먼저 백성들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사 40:6)라고 고백한 후에야 위로의 목적을 성취한다.

2. 더 나아가 **시들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반적인 절차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놀라서는 안 된다. 창조하신 순서를 잘 관찰해보자. 지리학의 일방적인 이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인류가 머물 최종의 거주지가 되기까지는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수리했다가 또 무너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창 1:1)하셨는가? 그렇다면 한참이 지난 후 정해진 때가 되어 7일 동안 인류를 위해 일하기까지 주께서는 땅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를 하실 당시의 물질의 상태를 생각해 보자.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 것도 없었다. 땅이 있도록 명령하실 때 어떠했는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창세기 1:2) 있는 상태였다. 이 위대한 창조에 다른 이의 계획이 끼어들만한 흔적은 전혀 없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사 40:14) 하나님께서는 건축하시려는 성전을 위해서 기둥이나 주춧돌을 예물로 받으신 적이 없다. 땅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는데, 히브리어로는 토우 보우(Tohu and Bohu)라고 한다. 한 마디로 완전히 무질서 상태였다.

새로운 창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옛사람으로부터 아무 것도 빌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옛집을 수리하지도, 부속 건물을 지어 덧붙이지도 않으시고, 다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새롭게 지으신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마음은 어둠으로 덮여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비추셨고, 어느새 생명과 각종 보배로운 것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언제 그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 3:15)라는 말씀은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이다. 인간이 더 이상 변명도 못 하고 다만 창조주 앞에 서서 죄책감을 느끼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왔다.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 조상을 위해 옷을 입혀주셨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창 3:11)는 질문을 하신 후에야 옷을 입혀주셨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치욕이 다 드러나서야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주시며 그들을 덮어주셨다.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게 묵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와 같은 놀라운 형태의 구원을 주셨다. 노아는 죽음과 관련하여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 자신은 마치 혼자 산 채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노아에게 남아있던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가장 비참한 역경에 처해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출 2:23) 되고서야 구원이 행해졌다. 구원을 위해 의지할 팔이 없을 때 “큰 권능”(민 33:3)과 “편 팔”(신 26:8)로 주님께서 그 백성을 나오게 하셨다(참조, 시 105:43).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피조물을 경비하게 하고 인간의 희망을 헛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 미국의 산간벽지에 경작지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며, 문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상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나무꾼들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찍어 넘어뜨려야 한다. 수백 년 된 우람한 나무들을 베어 뿌리를 불태워 자연의 옛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새것이 올수 있도록 옛것은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님께서 처음 것을 치우신 후 새로운 것을 세우실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외부로 보이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 안에서도 똑같다. 우리 영혼이 쇠잔해지고 시들어야만 우리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택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삼상 3:18)고 고백하게 된다.

3.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과정은 매우 보편적임을 알게 된다.** 시드는 것은 무엇이 시드는 것인가? 육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인가? 또는 육체의 성향 중 어떤 일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다시 본문을 보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사 40:6). 이사야는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의 꽃”이라는 매우 정교한 단어를 택하고 있다. 풀은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사는 풀이 있는가? “풀은 마른다.” 모든 풀이 동일하다. 꽃은 오래갈 것 같은가? 참으로 아름답기에 불멸성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다. 결국 서서히 다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에 숨을 불어넣으시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시들며 세상적인 마음은 모두 죽게 된다. 물론 우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육체의 쾌락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 달콤했던 것이 쓰게 되고 반짝이던 것은 빛을 잃는다. 사람은 죄를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때 기뻐했던 육신의 기쁨을 아직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변화한 것이 아니다. 그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육신을 쫓으면 그는 결국 죽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세상과 욕망은 꽃으로 수놓은 봄날의 초원처럼 아름답겠지만 중생한 영혼에게는 황무지와 같고 황폐한 소금밭과 같을 뿐이다. 물론 우리도 한때 그러한 것들을 기뻐했지만 지금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고 말한다. 우리는 세상의 독이 담긴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부르짖으며 또 그것들을

형오한다. 그리고 한때 왜 그러한 것들에 빠졌었는지 의아해 한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이러한 시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가? 육신의 욕망과 허영과 쾌락이 당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아직 당신의 영혼을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육체의 자랑과 아름다움은 파괴된다. 즉, 우리의 의는 우리의 죄악과 함께 시들어진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우 선하다고 생각했었다.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눅 18:21)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가?”라고 거만하게 묻는다.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았던가? 아니, 우리가 여태 종교적이지 않았던가? 우리가 때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들은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감히 악한 교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부도덕한 존재들은 아니라고 상상한다.

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닿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잎사귀처럼 희미해지고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과거의 성품에 대한 그 어떤 가혹한 묘사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동기와 행동들을 깊이 점검해보면서 당신은 많은 악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시들게 해주신 것은 아직 그분의 일을 절반도 완성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 파괴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것들 중에는 우리의 결단의 힘에 대한 자랑도 파괴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언젠가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변덕 많은 사람은 “아, 나는 언젠가 과거의 실수를 바로 잡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한다. 아,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육신의 결단력은 아름다운 꽃과 같이 반드시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뜻한 바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모든 선한 것을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는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영의 빛으로 보면 결심처럼 연약하고 가련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내 안에는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각성된 양심과 지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양심의 빛을 사용할 것이며 조금 헤매더라도 다시 바른 길을 찾을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 이 사람아! 그대의 지혜는 그대의 본성의 꽃이지만 그저 어리석은 지혜임을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는가?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그저 야생 당나귀처럼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기를 바란다.

성령의 시들게 하는 바람이 육체의 마음 위로 불 때, 그 바람은 모든 면에서, 특히 선을

행하는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의 죽음을 드러낸다. 그때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을뿐더러 내 영혼 자체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도 느낀다. 그러면 나는 옳은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슬퍼하거나 신음할 수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갈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아! 나는 그리스도를 마땅히 필요로 해야하지만 그분을 필요로 하는 느낌조차 가질 수 없다. 내 마음은 마치 무덤 속의 썩은 시체처럼 딱딱해져 있다. 아, 때때로 펄펄 울 수만 있다면! 나는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 할 수 없다. 믿음을 갈망 했으나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나는 육인 채 갇혀 있다는 것을 느끼며 또한 마비되어 있는 것도 느낀다.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이지만 필요한 계시이다. 이는 육체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혼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회개의 일을 하였다면 그 회개조차 다시 회개가 필요하다. 육체의 꽃은 반드시 시든다. 오직 성령의 씨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천국의 상속자는 피나 육체로부터 나지 않으며, 육체의 의지 및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만일 우리 안에 행하여진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이라면 우리가 정작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때에 시들어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는 풀과 같을 것이며 미래는 떨감으로 던져질 것이다.

4. 우리는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역사는 반드시 마무리 된다**는 사실이다. 풀은 단지 처지기만 하는가? 아니다. 반드시 시든다. 들판의 꽃은 어떠한가? 꽃이 머리를 떨구기만 하는가? 아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그것은 사라진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것은 멀리 날아가 버린다. 그것을 되살릴 길은 없다. 끝난 것이다. 성령에 의해 깨달음을 얻은 자 역시 그들의 육체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알게 된다. 몇몇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 안에서 얼마나 죽이고 시들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는지! 존 번연은 그의 책 <넘치는 은혜>에서 자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존 번연이 은혜로 말미암아 천성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기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 개월 아니 수년 동안 옛사람 번연에 속한 모든 것들에 사망을 선포하신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오랜 시간의 시련을 겪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져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자아에 대하여 죽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썩을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육신에 속한 마음이 개선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참조, 롬 8:7). 옛 본성이 개선될 수 있는가? 안 된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하늘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 안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2:14). 옛 본성은 무덤에 두는 것 외에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옛 본성은 죽어 묻혀야하며 그렇게 될 때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할 씨가 영광스럽게 자라날 것이며,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며, 은혜는 영광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옛 본성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있던 옛 본성은 그 성도가 80 세가 될 때에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적이다. 그것은 개선될 수

없으며 개선될 가능성도 없다. 옛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그 자체이고 마음속의 생각과 상상은 악하며 지속적이다. 옛 본성은 육체로 불리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에”(참조, 갈 5:17) 이 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5. 추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영혼 안에서 시들게 하는 이 역사는 매우 고통스럽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읽으면서 매우 장엄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는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도다”(사 40:6-7). 이는 슬픈 일이지만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런 아픔을 경험한 자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인생에서 훨씬 더 밝고 행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내가 주목하여온 바에 의하면 매우 쉽게 회심하고 자기 자신의 부패에 대해 비교적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은 나중에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랫동안 갓난아이 상태로 머물게 된다. 그들은 맨 처음에 깊은 아픔을 겪었더라면 당하지 아니하였을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당황하게 된다.

독자들이여! 만일 은혜가 당신의 영혼에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자기 신뢰라는 오랜 벽이 남아 있다면 그 벽은 조만간 허물어질 것이다. 혹시 옛 본성에 속한 벽이 남아있을 경우 당신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옳거나 선한 일이 아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옷에 생베 조각을 붙이지 않으시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결국 옷이 심하게 찢어질 것이고, 가죽 부대가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옛 본성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은 해체되어야 한다. 육으로 지어진 건축은 회반죽과 석고, 지붕과 토대 등 다 무너져야 하고,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얻어야 한다.

큰 화재에 의해 전염병의 은신처였던 오래된 건축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훨씬 건강한 도시가 세워졌을 때, 이것은 런던 도시에 큰 자비였다. 하나님이 사람의 의와 힘을 다 쓸어버리심으로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그의 유일한 힘은 오직 영원히 영광 받으실 성령의 영원한 능력에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큰 자비이다. 어떤 사업장에서 오래된 제도 아래 수 년 동안 많은 혼란과 부패가 종종 있어왔다. 당신은 새로운 관리자로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채택하였다. 자, 당신은 혼 힘을 다해 기존의 낡은 제도 하에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킨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근심이 발생하겠는가? 해가 지나면서 당신은 스스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내가 전체를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고 명확하게 시작하였더라면, 내가 처한 곤경이 10 분의 1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부패한 본성에 은혜의 제도를 접목시키고자 하시거나 옛 아담으로부터 새로운 아담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우리에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골 3:3)는 사실을 가르치신다. 구원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다. 육에서 난 것은 고작 육일뿐이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다.

6. 독자들이여, **시들게 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다**. 나는 이미 옛 것을 버리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확고히 말하였다. 그러나 더 추가하자면 옛 본성은 그 자체로 부패하였기에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풀이 왜 시드는가? 그 이유는 풀은 시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뿌리가 늘 무덤에 있기에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 땅에서 생겨난 것이 어떻게 불멸할 수 있겠는가? 풀은 시들지 않는 꽃이 아니다. 그것은 낙원에서 피는 꽃이 아니다. 그것은 저주 받은 땅에서 자라난다. 당신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당신처럼 유한하며 죽게 되어있다. 부패의 씨는 인류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 안에 있다. 그 열매들은 보기에 에덴의 포도 열매처럼 좋아 보이나 반드시 썩어서 없어진다.

더욱이 나의 형제들이여! 결코 우리의 구원에는 육에 속한 부분이 있고 성령에 속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러하다면 영광도 나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 만일 내가 세상에서 행한 일을 통해 천국의 일부를 얻고,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천국의 일부를 얻는다면, 만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일부는 나의 것이고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에 따른 보상과 천국의 찬양도 일부는 주님께 올려지고, 일부는 피조물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교만한 육신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대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여도 그대는 뺏속까지 부패하여 있다. 그대가 온 힘을 다해 수고해도 그것은 타버릴 나무와 재가 될 그루터기일 뿐이다. 당신 자신의 자아 신뢰를 버리고 그 일과 공로와 영광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바라보라.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시들어져야 마땅하다.

7. 이 마지막 말이 우리가 설명한 과정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참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매우 기쁘다. 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참은 언제나 행복의 서곡이기** 때문이다. 시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나는 다음 번역을 보고 기뻐한다.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사 40:7). 이는 “여호와와 바람이 그 위에 붉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바람”과 “기운”은 같은 단어이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와 영이 그 위에 붉이라”는 번역이 선지자의 의미를 가장 옳게 전하고 있다고 본다. 육신을 시들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나의 자기 의를 죽인 일은 사탄의 소행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었던다면 나는 두려웠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제 자아를 낮추며 수치스럽게 하였을까? 그럴 리 없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육신에 의해 온전하게 되느니 성령에 의해 부서지는 것이 낫다! 주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는 죽인다.” 그 다음에는 “나는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친히 죽인 자들 외에 아무도 살아나게 하지 않으신다. 자기 자만심과 자기 공로의 그 심장에 칼을 꽂아 나를 죽이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자. 이는 그 후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나는 상처를 입히고 치유한다.” 성령은 상처를 입히신 자들만을 치유하신다. 그렇다면 상처 주시는 그 손길을 찬양하자. 계속해서 상처를 입혀주시고 자르고 찢어 주소서. 최악의 상태에서 저를 내버려두셔서 저를 절망에 빠지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자비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난하고 죄 많은 길 잃은 멸망의 죄인의 상태에 있는 제가 그 자비를 오직 주의 주권적인 은혜의 품 안에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야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도예가의 손에 있는 찰흙처럼 되어야 주께서 자기 보시기에 좋게 그를 빚으실

것이다. 형제들이여 기뻐하라! 당신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성령께서 당신을 낮추신 것이라면 이는 당신의 영혼에 악은커녕 무한한 선을 의도하신 것이다.

**이제, 심는 것에 관한 몇 문장을 다루면서 마무리 하겠다.**

베드로에 따르면, 육체는 시들고 그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너희가 거둬낸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5). 자, 복음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용할 것이다. 그것이 육신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육신 이상의 것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서 영적이며 신성하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안에는 위대한 선물이 있으며, 구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모든 가르침은 신성으로 총만하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적 이론이나 당신이 만들어낸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기에 시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짓 복음을 믿는 당신은 죽음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축복할 수 있고 당신의 영혼의 씨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고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요 1:14) 썩지 아니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고후 5:19) 말씀이다.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일 5:1)임을 알려주는 썩지 아니할 말씀이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요 3:18)을 알려준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요일 5:11)을 말한다.

자, 형제들이여! 이 복음이 그 씨이다. 그러나 그 씨가 당신의 영혼에서 자랄 수 있으려면 성령에 의해 그 씨가 당신 영혼 안에 심겨져야 한다. 성령께서 당신 영혼에 그 씨를 심으시니 이 시간에 그 씨를 받으라. 그 씨를 신속히 받은 후에 “제가 믿습니다! 제가 붙들겠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제 소망을 둡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 그 완전한 속죄만이 나의 유일한 확신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 안에 살아있는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본문에 따르면, 살아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 거둬나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다. 그것이 새 생명이다. 옛 본성에서 나온 어떤 더 나은 것이 아니다. 옛 아담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세련되게 한 후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육체는 시들고 그 꽃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강조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다. 당신은 중생과 함께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마치 처음 지음을 받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초월한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은 신자들이 받은 이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단지 몸과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본성이 있다 - 영과 몸과 마음이 있다.

새로운 원칙, 곧 신성한 생명의 불꽃이 그의 영혼에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하거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한다. 그는 나머지 인류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생명을 소유한다. 오, 당신의 영혼 안에서 육체에 속한 것들을 시들게 하신 하나님이 신속하게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자세히 보라. 말씀을 통해 나온 새 생명은 썩을 수 없고, 항상 살아 있으며 영원히 거한다. 참 신자의 마음에서 줄은 씨앗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세상과 악에 의해 시도되어 왔지만 아직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창공에서 태양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마음에서 은혜를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문은 그 씨는 “살아 있고 영원하다”고 말씀한다. 그 씨는 스스로 부패하거나 또는 부패될 수 없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일 3:9).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당신에게는 언젠가는 죽을 자연적인 생명이 있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된 영적인 생명도 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안에 가장 고귀하고 참된 영생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평화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간다.

오, 귀한 독자들이여! 기억하라. 이 씨가 없으면, 당신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 아! 그렇지 않다. “주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있다.” 당신은 생명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생명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고통과 고뇌가 가득한 영원한 죽음을 상속 받는 비참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하느니라.” 당신은 “두 번째 죽음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당신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자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영원히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시기를 기도드린다! 만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다면, 주의 신성한 불꽃을 끄지 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한 생각도 하찮게 여기지 마라.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은 거둬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하라. 당장 가서 주의 자비를 구하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라. 가진 것이라고는 달빛뿐인 많은 사람들이 주께 간구하여 햇빛을 선물로 받았다. 무엇보다도, 살리는 씨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 경외심을 가지라.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라. 살리는 씨는 다음 문장에 전부 요약 되어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참조, 행 16:31).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신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기도드린다.

### 3. 조지 물러의 성령론

출처: *Depending entirely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George Müller Treasury*, Edited by Roger Steer, (Crossway Books, Westchester, IL., c1987)

저자: 조지 물러(1805-1898): 순회 복음 전파자, 영국 비스틀 애슬리다운 고아원 원장, 독일 출생

역자: 정영진

성령은 오순절 날 교회공동체에 부어졌다. 성령은 우리의 수많은 실패에도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불기둥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축복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 더불어 하나님은 성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각각의 신자에게 보내주셨다.

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교회 및 신자와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바라보며, 열심히 계속해서 간구해야한다.

우리는 죄인을 회심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성경의 지식과 전달력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설교자라도 성령의 축복이 없다면 몇 달간 이어지는 설교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닮기 위해 어떤 방법(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모이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제자로 여겨질 만한 일들)을 추구한다고 해도, 이 모든 방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또한 중생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 무관하다. 이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혹은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새롭게 된다. 이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취하셔서 그의 성전으로 삼으신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아직 무관하다.

#### 4. 성령님의 인도하심

출처: *The Holy Spirit*, a Baker Book House publication

저자: 아더 핑크(A. W. Pink, 1886-1952): 목사, 순회 성경 교사, 「성경 연구」 및 수많은 책들과 「하나님의 주권」의 저자, 영국 노팅햄에서 출생.

역자: 남규석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다양한 복된 사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성령님은 그분의 모든 다른 기능들에 더하여, 경건한 자들을 인도하는 일을 수행하신다. 성령님은 구약시대 동안에도 일하셨기에, 이것은 현재에만 특별히 허락된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서 63장에 분명히 나와 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사63:11-14).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통과하게 하고 길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할 수 없었고 단지 지팡이를 뺨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었다. 모세는 단순히 인간 도구였으며, 성령님께서 능력 있는 대리자이셨다.

위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적 자극뿐만 아니라 외부적 지시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매튜 헨리는 그의 로마서 8장 14절 주석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학자로서는 그의 배움에서 그의 선생에게 인도받는 것이고, 여행가로서는 그의 여행에서 그의 가이드에게 인도를 받는 것이며, 군인으로서는 전투에서 그의 지휘관에게 인도를 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단지 외부적인 면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 본질적인 성령님의 내부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에 불충분하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렘 10:23). 우리는 본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우리에게 보일 때조차도 그 길로 걷는 것을 꺼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아 1:4). 우리는 거룩하게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는 ‘주를 따라 달려가기는커녕’,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구약의 다윗은 이러한 겸허한 진실을 잘 이해했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여 주의

율레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시 113:33,34)라고 기도했다. 둘째로, 그는 거룩한 깨달음에 더하여 무언가가 더 필요함을 인식했다. 그러므로 그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시 113:34,35)라고 덧붙였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거룩을 싫어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속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 죄의 힘은 그것을 사랑하는데 있기에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끌려 위의 것들을 사모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 받는다. 게다가, 우리의 의지는 왜곡되어 있기에 오직 초자연적인 은혜가 주어질 때에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것’은 안으로부터 그 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비밀스럽지만 그 분이 진짜 원하시는 바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습관에 의해서도, 영원하고 신령한 천상의 거룩한 것들보다,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세속적이고 악한 것들에 이끌린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를 따른다. 우리 생의 처음 몇 년은 단순히 감각에 의해 지배되며, 감각을 만족케 함으로 얻는 기쁨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 게다가, 세상에서의 변함없는 삶과 물질적인 것들과의 오랜 접촉에 의하여, 세상적인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세상의 틀 속에 빠지게 된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습관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본성’이 된다. 우리는 삶의 어떤 특정한 방침을 더 따를수록, 그 안에서 더 기뻐하며, 그것을 그만두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유년기부터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연적인 욕망과 욕구는 방종과 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울부짖는다. 의지는 육욕의 길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마음은 물질적인 쾌락을 갈구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 영혼의 유익과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놓일 때, 또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제시될 때, 우리 의지는 이미 반대 반향으로 편향되어 있고, 우리 마음은 오랫동안의 방종에 의해 달라붙은 다른 성향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기쁨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 마음은, 이성의 지시에 응답할 수 없으며, 하늘의 거룩한 것 위에 그 자신을 둘 수 없다. 심지어 그 영혼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탄의 교활한 자장가를 더 선호한다. 전능하신 성령님 외에는, 그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킬(‘인도할’) 수 없다.

이제 그 마음은, 우리의 습관적인 선호가 세속적인 것보다 거룩한 것에 더 향할

때 하나님께로 기울어진다. 죄의 힘이 죄를 사랑하는데 있는 것처럼 내주하는 은혜 또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지극히 사랑할 때, 의지의 방향과 감정의 힘은 그것들을 따라간다. 우리의 욕구와 노력, 영혼의 힘과 흐름의 방향이 거룩을 좇을 때, 그때에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을 축소시키고 그 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가? 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훈적 설득과 은혜의 힘에 의하는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7). 하나님은 전능한 힘과 부드러운 권유를 결합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물리적인 역사보다는 영적으로 일하신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속성과 그 안에 있는 법칙을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강요하지 않으시며,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는 저울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 마음에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던지며 제시하시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일은 그 분이 우리 영혼에 단 한번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계속 자주 새롭게 반복된다. 이는 우리의 ‘육체’ 또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일지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분께로 향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의 구절과 바로 앞선 구절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보게 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악한 성향과 그것에 빠지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면, 그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은 13절의 확증과 부연이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들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체 문맥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고”(롬 8:4), “영의 일을 생각하고”(롬 8:5),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롬 8:13) 것이다. 칼빈은 로마서 8장 14절에 대하여 적절하게 “그러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취하는 위선자들의 헛된 자랑은 날아가 버린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적극적이라 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권하시는 것을 말하고, 수동적이라 함은 우리가 그 권하심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의 거룩한 요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수동적으로는 우리 쪽에서 그 요구에 복종한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분의 일하심에 순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이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억제하시는 힘이다. 그러나 그 분의 “인도하심”은 그 부분에 제한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해지도록 격려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구속의 언약 하에서 여호와와 영의 사역은,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부르신 후, 친히 부르신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장래의 인도를 맡으시는 것이다. 그 분은 천국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을 아신다. 그 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위험, 복잡한 미로와 같은 인생의 여정, 사탄이 영혼을 속이는 수많은 잘못된 길들, 그리고 악한 것을 따라가는 인간의 마음의 부패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 분은, 그 무한한 은혜 안에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을 담당하시며, 그들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오, 이러한 천상의 인도자를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가 그 분의 지시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그 분 없이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들인지! 우리는 그 분의 지시와 일하심을 따르는데 얼마나 민첩하여야 마땅하겠는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복된 하나님의 영은 객관적으로, 또한 주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객관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지시적인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 행동이 규제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신비한 자극에 의해 반드시 따라야 할 길(악을 피하고, 의무를 수행하는)로 나아가도록 감화시킨다. 하나님의 영은 새롭게 된 영혼 안에 있는 그 분 자신의 생명에 역사하신다. 그 분은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올바른 성향을 유지시키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그를 준비시키신다. 그 분은 양심에 효과적으로 말씀하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욕구를 절제하게 하고, 그 분의 거룩한 제시와 제안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명하신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 것’은 그 분의 지도와 통치 하에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아이와 자존심이 강한 청년은, 억제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은, 그 자신의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악한 자들은 사탄,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엡 2:2)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에 복종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많은 광신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영에 의해 인도를 받아’ 행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과 타인들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제안들과 통제 불가능한 충동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진실로, 누구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내면의 충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것들이 자기 자신의 불안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그 누구도 절대로 성경과 반대로 행하도록 자극하지 않으신다. 그 분이 성경의 저자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그분의 촉구는 항상 성경의 교훈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뚜렷하게 부름 받지도, 구별되지도, 자격이 부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설교’를 할 때, 그 충동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들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도록 ‘인도 받는다고 느낄 때’(고전 14:34), 그녀는 ‘다른 영’(고후 11:4)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함으로써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취하면서 그것을 ‘인도’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세 가지의 구별된 활동에 의하여 그분의 인도하시는 사역을 수행하신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생명과 은혜, 즉 새로운 ‘본성’을 전달하시며, 둘째로, 그 생명이 행동하도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며, 셋째로, 의무를 성취하도록 행동을 지시하신다. 생명, 행함, 품행은 구별될 수 없는데, 본성과 은혜에서 동일하다. 첫째, 성령께서는 영혼에 은혜로운 습성을 주입하여 우리를 살려 새 생명을 갖게 하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겔 36:26). 둘째, 성령께서는 영혼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본성이 은혜로운 습관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도우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셋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시고, 우리의 성향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므로써,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신다.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두 가지에 관한 부분이다.

거룩한 지시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시 25:9).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지시 뿐 아니라, 특별한 자극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사 48:17). 성도들은 훌륭하고 필수적인 복으로써 거룩한 인도하심을 원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시 25:4,5).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진지함에 유의하라.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이 주장에 유의하라. 이처럼 주는 나를 맡아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내

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라고 하는 끈질김을 보라. 마치 그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지혜와 능력에 잠시 동안이라도 빠지지 않으려는 듯하다. 심지어 '새로운 본성'조차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빛”(엡 5:8)이고 경건의 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무지와 어둠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 따라서 꾸준하고 변함없는 순종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빛이 지시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성령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만약 그들에게만 맡겨진다면, 그들 자신의 부패가 그들을 눈멀게 하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시 119:133)라고 기도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매일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찾기 힘들고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든 일들에 성경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알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성령님은 거룩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우리는 반드시 그 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기울게 하고 설득하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신다. 죄를 향하는 우리의 성향은 얼마나 강한지, 육적인 충동들이 더 나은 판단을 얼마나 쉽게 압도하는지, 우리들은 유혹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부패한 애착으로 인하여 반대로 이끌리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곳이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피하고 죄를 죽이도록 명령하는 그 분의 억제하는 사역에 의해,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도록 이끄시는 촉진 사역에 의해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의 ‘분투’에 복종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는 도덕적인 대리인들로서 성령과 협력하고 그 분의 관대한 다스리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아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에 종종 실패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어떤 지점까지는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지만, 그 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파선되는 것을 막으시고 많은 징계 후에 우리를 안전하게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롬 8:14)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룩한 인도에 의한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길을 자주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육욕과 비뚤어짐을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은혜를 간절히 구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그들

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과 그 분께서 명하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찾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점점 더 일치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한 힘은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 우리 자신의 지혜에 대한 확신,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의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신뢰로부터 벗어난다. 우리는 자기의지, 자기만족, 자기확대로부터 벗어난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안내하신다. 하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이러한 벗어남은 한 순간에 성취되지는 않으며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아아, 고작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중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성령님께 항복하기를 진실하게 그리고 열렬히 바라는 순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경쟁 대상의 유혹하는 힘은 곧 우리가 한 항복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은지를 드러낸다.

둘째,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께 점령되도록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의 깊은 필요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비참과 궁핍을 채울 수 있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구세주와 더 가까이 연합하도록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과 죄책을 의식하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많은 시험 및 억압을 받았는가? 성령께서는 시험 받은 자를 도우실 수 있는 분께 인도하신다. 우리의 공허함과 벌거벗은 상태 때문에 울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총만함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께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것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다.

셋째,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 우리는 거룩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벗어나 주 안에서 발견되는 만족스러운 기쁨으로 인도하신다. 그 분은 우리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버리고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하늘의 것을 사랑하도록 이끄신다. 그 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서 멀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하고 변함없는 교제를 추구하도록 움직이신다. 그 분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점점 더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 분은 진실로 약속하셨기에,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 5. 성령과 교통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

출처: *Communion with God*

저자: 존 오웬(1616-1683): 회중 교회 목사임 신학자. “청교도의 왕자”로 불린다. 영국의 옥스퍼드셔의 스태드햄프톤에서 출생

역자: 이충원, 스테반 황

### 1. 성령의 첫 번째 일반사역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일이다(요14:26).<sup>1)</sup>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 하나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대한 약속이며(필자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다룰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약속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보혜사이신 성령의 사역과 관련한 첫 번째 일반적인 약속이다.

이 약속은 가장 먼저 사도들과 연관이 있다.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그분의 직접적인 권능의 역사를 통해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다. 이에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주의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벧후1:21).<sup>2)</sup> 사도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상당히 많은 부분 잊었거나 잊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인간적인 기억력은 교회를 위한 믿음의 무오한 법칙을 쓰기에는 충분한 기반이 되지 않는다.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러한 믿음의 무오한 법칙(성경)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이 약속은 신자들에게도 위로가 된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도움과 힘을 주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셨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들에게 주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후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이러한 것들(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이 주실 영광)을 너희 자신의 위로를 위해 사용하는 데 무력한 자인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너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줄 영광을) 충만하게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로써 너희들은 그 사랑과 영광 안에서 내가 예비한 평안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재가 왜 먼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주님의 약속들이 사도들의 마음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그들은 어찌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신

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2)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1:21).

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누린 기쁨보다 더 큰 약속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약속의 은혜로운 영향력들이 그 때는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결과 그들이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다(요14:27).<sup>3)</sup> 그들은 걱정과 근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러나 보혜사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모든 것이 괜찮다. 그 때,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셨던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친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남겨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적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강력하게 행하신다.** 신자는 가장 슬프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들어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자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하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불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사탄이나 사람이나 세상이나 심지어 죽음 그 자체마저도 그 위로를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성령과 교통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자들이다. 때로는 하늘이 어두워져 그들을 덮을 때도 있고, 발 밑의 땅이 흔들릴 때도 있다. 공포와 어둠을 가져오는 재앙과 곤궁 앞에서 성도들은 절망가운데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위로와 기쁨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놀랍게 되살아나는지! 그러므로 신자들의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 자신을 성령께 드릴 때, 성령의 내적이고 강력한 효력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성령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가도 다른 때는 고통으로 가득하여 괴로울 수 있다. 어떤 때는 문제가 크고 무거움에도 모든 약속이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주는 반면, 또 다른 때는 고통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약속들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성령을 부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약속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 주어진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주권적인 뜻과 기쁨을 기다리는 것을 배운다.

**성령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낌없이 일하신다.** 그리스도의 약속들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의 대부분이 성령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위로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찾

---

3)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아오는 것을 발견한다. 이는 종종 신앙을 잃고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

모든 위로로 충만한 삶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간직되어 있다. 우리는 그 약속들로부터 경건한 위로의 젖을 공급받는다. 비록 우리가 그 약속들을 오랜 시간 목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문자 안에 갇혀있다면 그 약속들은 얼마나 무력한가! 하지만 그 약속들은 얼마나 감작스럽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주던가! 믿음은 특히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 믿음은 그 약속들을 고려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생명과 위로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기다린다. 영혼은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들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약속의 생명을 느끼는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안다. 이 사실은 신자의 기쁨을 더할 것이며 그를 성령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끌 것이다.

## 2. 성령의 두 번째 일반사역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요16:14)<sup>4)</sup>

만일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는 ‘다른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치켜세우는 자의 영이 어떤 부류의 영인지 알 수 있다.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거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영은 분명히 거짓 영이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그리스도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온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5).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과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은혜는 또한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들이다. 그리스도는 “보혜사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위임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너희들의 덕을 위해,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기 위해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선포하며 너희들로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보혜사로써 성령은 죄인들의 영혼에게 은혜언약의 은총을 드러내신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아들이 값을 치른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용서와 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알려주신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 알려졌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영혼에 이러한 은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며, 그것들이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신다. 그 은혜는 본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며 영원 전부터 그의 사랑과 선하신 뜻 안에서 예비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그 은혜를 획득하셨고, 이는 은혜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렇게

---

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16:14).

하여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세주이시며 대속자이신지 충만하게 깨닫게 된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 신자는 자신을 위해 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 3. 성령의 세 번째 일반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다(롬5:5)<sup>5)</sup>

여기서 이 구절의 의미는 문맥상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수용 및 승인하는 사랑이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을까? 이 사랑은 오직 영적으로 이해될 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즉,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께서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죄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매우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인을 향하여 오직 호의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다고 설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이다.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고, 우리는 이 특별한 사역에 의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것들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기에 아들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 안에 놓여있다.

### 4. 성령의 네 번째 일반사역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롬8:16)<sup>6)</sup>

때때로 영혼은 옛 본성의 잔재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의심을 한다. 그래서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입증하고자 모든 증거들을 끄집어낸다. 성령께서는 이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오셔서 이것이 참이라고 증언하신다.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장면을 그려보라. 판사가 앉아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항변한다. 그때 한 유력하고 정직함이 검증된 사람이 법정 안으로 들어와 그 주장에 대해 증언한다. 이로써 모든 공격하는 자들의 입이 막히고 피고인은 기쁨과 만족으로 넘치게 된다. 이는 신자에게도 동일하다. 영혼은 자신의 양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5:5).

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8:16).

심의 힘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된다. 영혼은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참 자녀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주장하는 청원을 올린다. 그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증거들, 즉 믿음이 그에게 준 하나님에 대한 권리와 자격에 관한 모든 것을 제시한다. 그러는 동안 사탄은 온 힘을 다해 대적이다. 죄와 율법도 또한 그 반대편에 동참한다. 신자의 증거에는 많은 결점들이 드러난다. 그 증거들이 모두 의심스럽고 그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로 남겨진다. 바로 그 때, ‘보혜사’가 오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마음을 붙드신다. 성령께서는 확실한 설득으로 모든 반대 의견을 기각하며, 신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분이시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께 보일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4:6). 그러나 성령이 그의 기쁜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매우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질 수 있다. 때로는 율법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죄와 사탄이 기뻐하며, 그 곤고한 영혼은 그의 기업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게 된다.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의 증거에 의해, 그의 믿음에 의해, 성화와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약간의 힘과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주장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직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오직 주권적으로 효력있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야 그 승리가 이루어진다. 성령께서는 주의 약속으로 못 입은 그의 능력으로 관련된 모든 무리들로 청종하게 하시고 모든 논쟁을 종결시킨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 자신과의 거룩한 교제를 허락하신다. 그 영혼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안다. 그 음성은 그저 피조된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은 신적인 능력이 역사한 것을 알았다(마8:25-27). 것처럼 성령께서는 영혼의 폭풍을 잠재울 때 한마디 말씀으로 그에게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주시며, 그 영혼은 그 신적인 능력이 실재임을 체험함으로써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

## 5. 성령의 다섯 번째 일반사역은 우리를 인치시는 사역이다(엡 1:13; 4:30)<sup>7)</sup>

무언가를 인친다는 것은 그것에 그 인의 형상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인의 특성이 그 인친 대상에게 새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지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야 한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를 인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성령의 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셨다(요 6:27). 주께서는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위엄을 부여하셨다.

---

7)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인침’은 서면으로 이루어진 어떤 허락 및 운송을 확인 또는 비준한다. 이 경우 사람들은 그들의 허락을 유효하게 하고 확증하기 위해 인을 친다. 인을 치면, 그 허락은 취소될 수 없다. 인침은 또한 누군가가 어떤 것에 증언한 진리를 확증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일이다. 누구든지 어떤 일 또는 사건에 대해서 진실한 증언을 하고 그것을 재판장이 받아들여야면 그 재판장은 즉시 그 증언에 인을 쳐서 그 증언을 확증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요 3:33). 그 약속은 신자들의 영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부여하고 전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및 그 약속의 취소 불가능을 확신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그 약속들과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해석을 할 지라도 나는 이 해석이 그 단어의 참된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약속이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수여를 인침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행위 또는 수여가 봉인되었다고 말한다.

인침은 소유와 안전을 보장한다. 봉인된 객체는 봉인되지 않은 객체들로부터 구별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에 인을 쳐서 안전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인침을 받았다고 언급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있다(겔 9:4).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유업의 상속자로 표시되고 또한 구속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 인침을 받는다. 자, 만일 인침이 이런 의미라면 마음에 확신을 주는 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표이다. 아버지는 택한 자들이 구속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셨으므로 때가 되면 그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의 돌보심에 자신들을 의탁한다.

우리는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침을 받았으며, 그 날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성령의 표와 형상과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의식할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기도 한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여주신다(고후 3:18).<sup>8)</sup> 성령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의 친교 관계로 인도하신다. 성령을 닮은 우리 모습은 우리에게 그와 교체할 당대함을 준다. 우리는 그의 행하신 일들을 찾는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의 효과, 곧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인식과 확신은 갖게 한다. 그 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역사 안에서 성령과 교통한다.

**6. 성령의 여섯 번째 사역은 그분이 “기업의 담보” 또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고후 1:22, 5:5; 엡 1:13, 14).<sup>9)</sup>**

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9)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후 1:22). “곧 이것을 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이 친히 "담보, 보증 또는 보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단어들은 각각 저당을 의미한다. 저당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한 것, 또는 장래에 주기로 약속한 것을 분명히 줄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그 사람에게 주는 또는 안전한 곳에 남기는 소유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담보, 보증 또는 보장"은 앞으로 주어질 것의 일부를 말한다. "담보"는 때가 되면 약속된 전부를 그가 받게 될 것을 미리 확신시켜주는 그 전부의 일부 또는 양도의 일부이다.

어떤 것이 "담보, 보증 또는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체의 일부이어야 한다. 그것은 총액을 나중에 다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담보, 보증, 또는 보장"의 보증금처럼 전체와 동일한 종류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전체가 약속된 후 그 약속이 성취 될 것이라는 보증 또는 보장으로 '담보'가 주어진다. 성령은 이러한 '담보'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기 위해, 그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값을 치르고 마련된 온전한 유산에 대한 약속을 보증하는 "담보, 보증, 보장"이다.

성령은 하나님 편이 "담보, 보증과 보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유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시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담보'로서 전체 유산과 같은 종류와 속성을 지니신다. 약속된 전체 유업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령의 총만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모든 죄와 슬픔을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약속된 전체 유업이다. 즉,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그 전체 유업의 '보증 또는 보장'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보장하고 확신시키기 위해 성령을 주신다.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과 맹세와 주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변치 않음의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풍성한 자비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을 주신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안전과 보장을 받은 것이 된다(사 59:21).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의 첫 열매, 그의 사랑의 최대한의 저당, 곧 전체의 보증 또는 보장을 갖게 된다.

성령님은 또한 신자들 측에서의 "담보, 보증, 또는 보장"이시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따라서 그들을 자녀들로 대하실 것이며 유업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그들 마음

---

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고후 5:5).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3-14).

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갈 4:6) 하신다. 이 사실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갈 4:7; 롬 8: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확신시켜 주신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유업을 알려주신다(고전 2:9, 10). “담보”가 전체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 ‘담보’에 의해 전체를 미리 맛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마련하신 총명한 영광을 미리 맛본다. 우리가 ‘담보’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많은 교통을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맛볼 수 있다.

#### 7. 성령의 일곱 번째 일반적인 사역은 신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다(고후 1:21, 요일 2:20, 27)<sup>10)</sup>

신자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많은 선물들을 받게 되는데 그것들 중에는 지혜, 권면, 그리고 이해가 주요한 것들이다(사 11:2, 3).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골 2:3). 따라서 신자들의 기름 부으심은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요일 2:20, 27). “기름 부음”의 사역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이시는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권면과 지식과 이해의 영이시다. 따라서 보혜사의 위대한 약속은 그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요 14:26). 그리스도는 보혜사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 16:13).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주된 이유이다.

성령은 확신과 조명으로 가르치신다. 따라서 성령은 약속된 대로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가르치신다(요 16:8).<sup>11)</sup>

성령은 성화로 가르치신다. 그분은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빛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전 2:13). 그분은 복음의 비밀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은 신자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성령은 위로함으로 가르치신다.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며 신자의 영혼에 달콤하고, 유익한 즐거움을 주신다.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은 그의 가르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불린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아 1:3)처럼 느껴지기에 신자들이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10)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고후 1:21).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요일 2:20).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요일 2:27).

1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

를 따라 달리도록 한다. 우리는 매일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을 위해 믿은 이러한 진리들 안에서 즐거움과 달콤함을 거의 맛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기름 부으심"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지!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 그분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가장 잘 맞는 귀한 포도주처럼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선한 것들로 풍성한 잔치를 여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이에 우리 영혼은 진리를 가까이 하게 된다. 이 기름 부으심으로 그 영혼은 미혹에 속아 오류로 빠지는 일이 없다. 오류보다 진리 안에서 더 많은 달콤함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쉽게 진리는 오류로 대체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좋은 진리 중 어떤 것이 우리 영혼에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 마음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진리에 합한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서 그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다.

성령은 또한 "간구의 영"이시다(슥 12:10). 성령은 우리가 올바르게 효력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도는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이루어진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을 승화시켜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영혼은 성령에 의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할 때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다. 이것이 위로자로서의 성령의 역사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믿음의 지혜가 있다. 믿음은 성령의 이 모든 사역 안에서 보혜사를 찾고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머물며 그러한 사역의 달콤함을 잃지 않도록 하자. 감사항으로 응답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

## **8.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신다(행 9:31).**

이것이 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그분은 고난 받는 영혼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선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또는 실제로 그에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주심으로 안식 및 만족을 주신다. 이러한 영적인 선은 영혼이 씨름하고 있는 그 고난을 완전히 극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위로는 언급될 때는 항상 고난이나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고후 1:5, 6).

이러한 위로는 지속적이다(살후 2:16). 그것은 변화무쌍하지 않다. 그 위로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기업처럼 영원한 것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항상 지속된다.

이 위로는 강하다(히 6:18). 우리가 강한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위안이나 위로

역시 강력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 위로는 그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강하게 한다. 그것은 그 영혼에 용기를 심어주어 그 어떠한 역경도 기쁘게 감당하게 만든다. 이러한 위로는 그 위로를 가져다 주는 성령이 강하시기 때문에 강력하다.

이 위로는 귀하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순종을 권하면서 이 위로를 위대한 동기로 삼는다(빌 2:1).

우리가 성령과 갖는 교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로와 위안을 준다. 그 교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며, 어려운 때에는 그를 바라게 하고, 그의 영원하고 강한 귀한 위로를 위해 그를 기다리도록 한다.

### 9.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준다(롬 15:13)

성령의 능력은 '소망'뿐만 아니라 믿음 안의 평화와 연관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또한 그들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요 14:26, 27). 그리스도는 보혜사를 주심으로 그의 평강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신자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임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엡 2:14)이라고 불린다. 그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심으로"(골 2:14)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개심을 제거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롭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은 우리의 평강의 기초이다(롬 5:1).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증오와 저주와 정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영혼은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 평강은 성령의 주권적인 뜻과 즐거움에 따라 주어진다. 사람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택함을 받고 아들의 피로 구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그는 복음의 모든 약속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주어질 때까지는 그의 마음의 추론과 설득으로든, 복음의 약속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려해서든 평강에 이를 수 없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이다(갈 5:22).

### 10.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준다.

성령은 "기쁨의 기름"(히 1:9)이라고 불린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은 기쁨을 가져다준다(사 61:3).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살전 1:6; 벧전 1:8). 신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주로 성령의 역사이다. 그분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롬 5:2) 하신다. 이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생겨나며 모든 종류의 환란을 감당하게 만든다(롬 5:5).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친히 기쁨을 만들어내신다. 거룩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샘이신 것처럼 ‘위로’에 있어서도 영적인 기쁨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채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때,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엘리자벳의 태에 있던 요한이 성령에 의해 뛰놀았던 것처럼, 그분은 그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샘솟게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신비하게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몰아내시고 이 기쁨을 영혼에 주입하시며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때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으로 기뻐 뛰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관련된 다른 일들로도 신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주의 가족으로 양자 삼으신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에 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진리를 받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우리의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굳건한 기초를 두셨는지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자신의 주권적 뜻과 즐거움에 따라 원하시는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생겨나는 기쁨에 대해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시 23:5)고 묘사하고, 이 기름 부음의 결과에 대해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시 23:6)고 말한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보혜사의 역사에 대한 멋진 묘사를 볼 수 있다(참조, 사 35장)

#### 11.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에 소망을 가져다준다(롬 15:13)<sup>12</sup>.

신자의 위대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들을 보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성령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신자의 마음에 행하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들을 고려한다면 그 역사들로 인한 모든 것들은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기대와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한 얼마나 성령의 역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

12)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